

올해 수도권 대학 입시, 어떤 변화 생겼나

# 지역균형·논술전형 늘고, 학생부종합서 수시 '최다선발'

지균전형에 평택대, 한신대 추가  
한양대, 학생 일반전형 3개로 늘려  
숙명여대, 소프트웨어인재전형 신설  
논술고사 시행 대학 38개 → 41개  
고려대, 7년 만에 논술전형 재도입

새 학기가 시작하며 고3 수험생 대입 준비가 본격화했다. 올해 입시는 큰 틀에서 지난해와 달라지지 않았지만, 지역균형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수도권 대학이 늘고 고려대가 논술전형을 7년 만에 부활하는 등의 변화가 있다.

### ▲ 학생부교과(지역균형전형)전형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지역균형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수도권 대학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평택대, 한신대가 추가돼 지역균형전형 시행 대학이 총 49개가 됐으며, 이 중 서울대를 제외한 48개 대학에서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한다.

한신대는 기존에 운영하던 교과전형 중 하나를 폐지하고 지역균형전형(학교장추천전형)을 신설했다. 이와 달리 평택대는 기존 교과전형에 지역균형전형(PTU추천전형)을 새롭게 추가했다. 전형명칭을 기존 학생부교과(지역균형발전)에서 학생부교과(추천형)으로 바꾼 한양대는 교과정성평가 10%를 반영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며 전형방법에도 변화를 줬다.

지역균형전형의 경우 대체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 전에 학교와 상의해야 한다.

### ▲ 수도권 지역 선발규모가 가장 큰 '학생부종합전형'

수시에서 가장 많은 선발비율을 차지하는 전형 유형은 학생부위주(교과)이지만, 수도권 지역에서는 학생부위주(종합)의 선발규모가 더 크다.

먼저, 한양대가 한 가지로만 운영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던 학생부종합 일반전형을 3종류로 늘렸다. ▲학생부종합(추천형) ▲학생부종합(서류형) ▲학생부종합(면접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추천형과 면접형이 새로운 전형으로, 추천형은 기존 학생부종합전형과 마찬가지로 면접 없이 서류100%로 선발하지만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면접형은 사범대 전형으로,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해 20% 반영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형과 다르다. 학생부종합전형 간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세 개의 전형 중 1개에만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숙명여대는 소프트웨어인재전형을 신설해 인공지능공학부, 컴퓨터과학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을 해당 전형으로 선발한다. 기존의 숙명디지털융합인재전형이 없어지면서 이름만 달라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과 달리 면접을 보는 단계별 전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 2년간 자연계열 모집단위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서류100%로만 선발해왔는데, 올해는 모든 모집단위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게 특징이다.

### ▲ 고려대, 7년 만에 논술전형 부활...

### 상명대·신한대도 신설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은 지난해 38개에서 올해 41개로 늘어난다. 서경대가 논술전형을 폐지했지만, 고려대와 상명대, 신한대, 을지대가 추가됐다.

고려대는 7년 만에 논술전형을 부활시켰다. 서울대를 제외하면 상위권 대학 중 유일하게 논술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이었지만, 올해 다시 도입한다.

을지대는 이전에 적성고사를 실시하던 대학이다. 과거 적성고사 실시 대학들이 현재 대부분 약술형 논술을 운영하는 만큼, 을지대도 약술형 논술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신한대도 마찬가지이다. 상명대는 적성고사를 실시했던 대학은 아니지만, 2025학년도에 논술전형을 신설하면서 약술형 논술로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신설 전형은 경쟁대학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의 전형에도 영향을 준다"라며 "전형이 신설되면서 기존 전형의 선발인원이 감소하기도 하므로, 관심 대학의 전형이 전년도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 본인의 유불리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성남시, 올해 545억 체납액 정리 목표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 예정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안정적인 지방세입 마련을 위해 올해 545억원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목표로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작년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징수 여건에도 지방세 290억원, 세외수입 119억원을 각각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고액 체납자 현장 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83억원을 징수한 데 이어 금융자산, 채권, 부동산,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을 4만4000건 실시해 217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아울러 ▲모바일 공공알림문자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 안내문자 발송 ▲ 체납 상담에서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체납통합안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연간 3만여명의 민원전화를 응대하며 비대면 납부안내 서비스를 강화했다.

시는 올해 정리목표 달성을 위해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

는 체납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자별 유형에 맞춘 차별화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방세 2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5000여명(체납액 567억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전문 세원관리반 운영을 통해 동산 압류, 영치, 가택수색 등의 강경 대응을 할 계획이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유연한 징수 시책을 추진하고 체납자 경제 회생과 시의 복지 정책 연계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성남(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대 정문.

## 서울대, 의대 입학정원 15명 증원 요청

의약분업 당시 감축된 정원 회복

서울대학교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5명 증원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5학년도 의예과 정원 15명을 신청했다"라며 "증원 요청 반영 시 의예과 정원은 135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의약분업 당시 감축된 정원 15명을 회복해 필수공공의료·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대는 기초보건 및 첨단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의과학자 양성을 위해 (가칭) '의과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임상의사가 아닌 의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다양한 교육·연구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라며 "특히 2008년부터 의과대학 의과학자양성사업단을 중심으로 기초과

학 연구에 전념하는 의과학자 양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는 2025학년도에 의과학과 신설을 전제로, 학부 정원 50명을 별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현재 우리나라와 국민이 직면한 어려움 해결에 기여함과 동시에, 서울대의과대학 학생과 교수, 병원 구성원과 의료계에서 염려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대는 학내·외 여러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대는 "이번 증원이 필수공공의료 강화 및 의과학자 양성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해 대학 차원의 정책적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서울대병원과 함께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필수공공 의료와 첨단 바이오·헬스를 통한 신 성장동력 창출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의료 개혁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서울시, 2026년까지 1007개 정원 만든다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  
매년 300여곳씩 조성 예정  
시그니처, 핏가든 등도 마련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정원 도시'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시내에 1007개의 정원을 만들어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향후 3년간 시내 897곳에 '매력가든'을 조성한다. 올해부터 매년 300여곳씩 만들어 시민들이 일상생활, 도심 출퇴근, 휴일 나들이길 곳곳에서 매력가든을 접하게 한다는 목표다.

우선 25개 자치구는 도로, 광장, 교통신과 같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매력정원을 마련한다. 종로구-종로타워앞광장, 도봉구-창동역 고가하부, 마포구-홍대 레드로드, 영등포구-문래동



서울대공원 매력가든. /서울시

공공공지 등이 그 대상이다.

도심 내 유휴부지 4곳에는 꽃정원이 생긴다. 올해 5월 마곡문화시설부지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다. 저층 주거지 일대 주택커브, 도로와 주택가가 만나는 작은 공간, 시장 근처 등 작은 자투리 공간에는 모여서 담소를 나

누는 사랑방 역할을 할 '마음정원'이 들어선다. 연내 종로구 이화장 마을마당을 포함 9곳에 조성되고, 2026년까지 29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도심 대로변, 건물 옥상, 고가도로 등 279개소는 사계절 꽃길정원, 가로정원, 옥상정원, 서울아래숲길 등의 이름을 가진 매력정원으로 되살아난다.

서울식물원, 매한시민의 숲, 동작보라매공원, 강남 울현공원, 마포 월드컵공원을 비롯해 서울의 대표 공원에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시그니처 가든이 만들어진다. 노을캠핑장과 난지한강공원에는 반려견과 뛰놀 수 있는 '핏가든'이 마련된다.

노인종합복지관, 시립병원, 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재활자립작업장, 유아숲체험원 주변 유휴부지에는 어르신, 장애인, 유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동행가든이 생긴다. /김현정 기자 hjk1@